

광주시 장애인 정책, 전국 모델되나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등 자립생활 돕고 예산 신속 배정... 타 시·도 주목 받아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탈시설·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마련 등 광주시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하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신들이 삶의 주체가 돼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 사업 ▲성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직무지원인 배치 등 발달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계획 수립 후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시켜 이들 정책의 실행을 앞두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광주시를 찾아 윤장현 시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과 예산 반영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 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첫 결재해 전국 특별·광역시 중 최초로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또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탈시설·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700명의 중증장애인 중 137명의 자립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인 체험홈과 우리집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을 위한 ▲탈시설 자립지원금 지원 ▲일상생활을 케어해 줄 비상주 코디네이터 배치 ▲지역사회로의 자유가 있는 삶으로의 여행 프로그램 ▲직업훈련교육 및 단기체험프로그램 ▲건강검진 등에 5년간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종합지원 TF’ 운영,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도 타 시·도에 비해 앞선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본인 광주시 명예시민증 받는다

근로정신대 문제를 처음으로 알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誠) 공동대표와 고이데 유타카(小出 裕) 사무국장이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받는다.

광주시는 11일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마코토 씨와 고이데 유타카 씨는 1986년부터 근로정신대 문제를 일본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1998년 11월에는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결성해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판이 진행되는 10여년동안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비와 체류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할머니를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위로하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운데)가 11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왼쪽), 박옥선(오른쪽)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혁신 시민대토론회 내일 열린다

광주전남연구원·광주NGO시민재단 주관 11월까지 청년 일자리, 5·18복원 등 5개 협치 의제 해법 나서

광주전남연구원·광주NGO시민재단이 공동주관하는 광주혁신 시민대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5~18기념문화회관 대동홀에서 열리는 개막토론회 ‘더 나은 민주주의와 혁신, 그리고 광주’를 시작으로 11월 까지 계속된다.

광주혁신 시민대토론회의 전체 주제는 ‘민주주의와 협치의 시대! 광주는 ‘광주’답게’로, 광주전남연구원,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올 상반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의제 발굴, 그룹별 참여자 선정 등을 맡아 진행했다.

개막토론회에 이어 지역사회 각 분야의 요구와 시민들의 관심사를 의제로 설정하고, 선택된 의제를 시민사회, 행정, 의회, 전문가 등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집담회, 라운드테이블 등이 계속된다.

9~10월 시민사회, 행정, 정치, 노동, 도

시공간 등의 분야에서 ‘광주, 우리 안의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5차례의 집담회를 갖고, 10~11월에는 온·프라인 시민 929명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5개 협치 의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협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5개 의제는 ▲청년 일자리 ▲도시철도2호선과 대중교통 해법 ▲마을 및 도시에서의 육아 ▲5·18 원형 복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공공서비스 영역 중차 활동 여건 개선 등이다.

협치 라운드 테이블을 모두 마친 뒤 추진위는 ‘광주, 더 나은 민주주의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폐막토론회를 갖고 그동안 논의된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해 발표한다.

또 광주시, 광주시의회, 시민사회, 정치계, 경제계(노동계),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각 분야에서의 실천 방안을 내놓고, 모두의 뜻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한 뒤 대토론회를 마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참여와 협치의 장이 대토론회”라며 “민·관·정이 협력해 보다 민주적인 도시운영과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설계해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대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서 식용곤충산업 발전 견인

10월 개최 국제곤충심포지엄 접수 8일만에 170여명 신청

오는 10월 국제농업박람회 학술행사로 열리는 국제곤충산업심포지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가 접수 8일만에 170여명이 신청했다.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전남농업기술원과 ㈜케이일이 주관하는 ‘제1회 국제곤충산업심포지엄’의 참가 접수를 지난 4일부터 받아 8일만에 170여명이 신청하는 등 관련 업계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곤충산업심포지엄은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중인 10월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에 자리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최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케이일과 캐나다 엔토모 팜(Entomo Farms), 미국 차풀(CHAPUL), 캐나다 씨푸 푸드(C-fu Food) 등 해외 유명 식용곤충 기업 6개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대학교 등이 참여해 ▲세계 각국의

곤충산업 관련 정책과 기술 ▲국내 곤충산업 정책 및 산업 육성계획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또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세계 환경문제와 식량난, 그리고 식용곤충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심포지엄 현장에서 공유한 정보를 통해 세계 곤충식량기구(WEIFO) 발족을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술행사 참가 신청은 2017국제농업박람회 홈페이지(www.iae.or.kr)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행사 당일 박람회 입장권, 점심식사, 세계곤충식량기구 관련 책자가 제공된다.

김성일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5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행사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식용곤충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오늘 취임

이재영(51)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이 12일 제39대 전남도 행정부지사에 취임한다.

행정고시 32회인 이재영 신임 부지사는 무안 출신으로 광주 진흥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예시터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부지사는 1991년 전남도 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기획관리실, 농업정책과,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서기관 승진 후 행정안전부로 전출 발령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정책기획관, 창조정부기획관, 조직정책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등을 거쳤다.

소통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아우르는 ‘덕장형 리더’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김윤기 대표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

위원 7명 중 2명만 참석

광주문화재단 김윤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광주문화재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마옥)는 11일 회의를 소집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전체 7명의 위원 중 2명만 참석해 성원 부족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인사특위는 오는 13일 오전 9시 재는

의한 뒤 그 결과를 당일 오전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간밤에 폭우가 내리면서 특위위원들이 지역구 내 수해지역 방문 등으로 일정이 빠듯해 많이 불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특위는 7명의 명의로 된 A4 용지 15장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대한 장·단점 각각 3가지씩을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신단지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